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日) 本紙夕刊十二面

溫突紙 朝鮮紙 全北紙物商會

社說 紙飢饉과文化

一

現代文化의 主軸이 무엇이냐 한다면 누구나 서슴지안코 出版이라고 대답할것이다。그러나 二三年來로 이 出版文化에 한개의 크다란 危機가 부닥처스니 그것이 곳 用紙飢饉問題이다。안으로 原料펄프의 缺乏과 밖으로 外紙輸入의 制限이란 二重의 苦難속에서 政府로부터 原料增産의 五個年計畫이 應急的으로 樹立되엿다고하드라도 이것은 아직 前途遼遠한채로 用紙飢饉의 問題는 지금가라서는 거의 不治의 境에 이르럿다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더구나 方今 中土에 이러난 聖戰이 아직 그 終熄할 바를 몰리 모든 國力을 기우려서도 이 大業의 完成을 꾀하지 아니하면 안되겟스므로 一般物資의 節約이 極限에까지 이르려하니 이러한 國策의 遂行을 爲해서는 用紙가 豐富하다고하드라도 오히려 自進해 節約해야할것인데 하물며 飢饉의 現狀일까부냐? 그러니 우리가 出版文化라는 한개의 領域만을 생각한다면 이危機는 三重으로 거듭햇다고볼수잇스나 이미 國家의 大是가 確立한以上에는 다만 方法論만이 남어잇슬따름이니 이大是를 遂行하는데 어떠한方法을 取하는것이 方便的이오 合理的이냐하는것을 講究해야할것이지 지금에잇서서 一朝의 打開策을 생각하는것은 도리어 迂濶한 일이라고할수밧게 업슬것이다。

二

그래서 이러한 危機의 打開策으로 가장 合理的方法이라는 것이 結局은 出版物의 數量制限밧게업스므로 當局으로부터 決定된것이 出版物을 三種으로 논하 第一種인 新聞은 年一割二分의 減頁이고 第二種인 雜誌、會報는 年一割의 減頁이고 第三種인 一般出版物은 年三割을 減頁하기로 하엿다고한다。이것을 보면 第一種、第二種인 新聞、雜誌、會報等은 첫재 定期刊行物 일뿐아니라 一定한 數量이잇스니 自處하기나 統制하기나 다 簡便하지마는 一般出版物이라는것은 그러케 簡單하게 또는 圓滑하게 施行되기가 어려운것이다。仄聞한에依하면 當局으로서도 이 第三種印刷物의 統制에 가장 腐心하는모양이며 그래서 아직도 一定한 對策이 確立되지안흔모양이나 대략 定해진 範圍로서는 各印刷所의 一年間用紙量의 統計를 基礎로해서 거기에서 各各 三割式減量을하리라고한다。

그러나 본래統計란것이 知識으로치면 槪念밧게안되는것이니 그統計가 과연正確을 期할수잇슬는지 또는 群小印刷業者에게 이르기까지의 統制가 얼마나 圓滑하게될는지 여러가지 保障하기 어려운 問題가 엇지도안치마는 問題를 이러케解決하려 한다면 이것은 單純한 經濟的問題이지 政治的問題가 아니며 따라서 文化的意味가 包含되여잇지안흔것이다 다시말하면 出版物의 內容은 相關하지 안코 出版物의 數量만을 주리는것으로 能事이라고 한다면 여하한 出版物이던지 우선 一般 水準만 適應하면 그다음에 出版이되고 안되는것은 出版業者와 印刷所와의 裏面關係에서 解決되고 말것이니 이것은 單純한 經濟的解決은되여도 진실로 文化的인 政治的解決이라고는 볼수업슬것이다。

三

그러케되면 가령 印刷業者가 一年間用紙量의 三割을 減하게되고 남어지 七割을 가지고 一般出版業者를 對할때 그사이는 서로 營利的關係이니까 아무리 廣告者와 讀者의 營利的手段인 族譜나 商品目錄이라도 그것이 利益만 더하면 비록 民衆生活에 文化的大書가 잇드라도 그것을 犧牲시키고 前者를 出版하게될것이며 그래도 法規上으로는 何等의 制裁를 加할수 업슬것이다 이러한 文化的矛盾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해서는 一般 出版物의 量的制限만으로는 不足하고 그質的 審査에도 用意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그러나 그質的審査를 施行할 한다면 여기에까지도 施行을 한다면 여기에 숨어잇는가장 重大한 一面은 그質의 文化的 價値이 있고 理解와 見識의 問題이다。戰爭은 速決을 爲主로하지마는 文化는 悠久한것을 樂觀하지아니하면 안되는 때문이니 우리의 內觀가 비록 戰爭中에 잇드라도 우리의 精神은 恒常 平和에 處하야 우리는 항상 이精神의 양식을 準備하기위해서、진실로 悠久하고 遠大한 文化를 理解하고 사랑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그러니 그 雜多한 出版物中에서 眞實의 書籍을 選擇하는데 어떠한것은 조코 어떠한것은 나뿌다는것을 一一히 따지기가 그다지 容易한일은 勿論 아니겟지마는 그 當局者가 항상 文化를 사랑하고 理解하는 雅量 大度만은 가지고잇서서 百年大計에 그 妥協이업도록 孜孜히 努力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七割五分以上獨人居住地 獨逸에合流承認? 英緊急閣議討議內容

【倫敦十七日發同盟】히틀러、췜벌린會談의 뒤를이어 英政府의 체코對策을 決定할 緊急閣議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따우닝街十番의 首相官邸에서開催 加奈陀旅行中의 스탄레自治領袖를除하고 췜벌린首相以下 全閣僚出席 十六日 푸라하로부터歸還한 斡旋役란시멘卿도 特히 列席 一時間半에亘하야 重要協議를하엿다 히틀러、췜벌린會談內容은 十六日午後의 關係閣僚會議에서 要旨報告를마추고 殘餘閣僚에 對하여는 十七日閣議再開前 文書로써 그內容을 通達하엿스므로 閣議席上에서는 다시 報告를 行치안코 먼저 란시멘卿으로부터 체코政府側의 態度를 報告하야 獨체間에는 아직 圓滿解決의希望이잇다는 樂觀的見解를 披瀝한後 即時 체코對策의 審議에 들어갓다 閣議에나타난 英政府의 對策內容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觀測도 잇스나 아바스通信社 倫敦支局의情報에 依하면 英政府의 新對策內容은 주데텐地方의 總人口七割五分以上의 獨人이居住하는地域을 合流하고 그代價으로서 체코에對하야 各國이 共同으로그安全保障하려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에對하야 閣僚로부터 여러가지意見開陳이잇슨後 熟議한結果 論議의中心이된것은

一、果然如斯한案을 체코가 受諾할가 어떨가

一、英政府는 체코의安全保障과 歐洲問題에關하야 여러가지 義務를負擔하는것이 得策이냐 아니냐

하는二點에잇슨 模樣이다 다음에 할리팍스外相으로부터 米政府의態度에關하야 報告가잇섯는데 閣議는結論을 짓지못한채 午後一時半 一旦散會하엿다 午後三時부터 再開할豫定이다

【倫敦十七日發同盟】베르히테스가덴에서 急遽歸還한 췜首相을 마지하야 英政府의 緊急閣議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되엿다 同閣議에는 체코問題의斡旋役 란시멘卿도 特히出席 베르히테스가덴會談에 히總統의 提案에對하야 英國의 체코問題解決에關한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午後一時一旦休會 午後三時부터 再開 午前閣議에서 協議된 체코問題態度에 關하야 最後的協議를한後 午後五時三十八分散會하엿다 (寫眞은 췜首相)

체코問題急激惡化 獨逸軍動員開始 豫備兵召集도萬端準備

【伯林十七日發同盟】체코政府가 주데텐黨의解散斷行 黨首幹部의 逮捕를 命令한結果 주데텐黨은 이에 對抗하야 주데텐獨逸義勇兵團을編成하엿는바 獨逸側은 이로써 事態는 이미 國內問題의 域을 脫하야 주데텐 萬若체코問題를 放置한다고하면 去十二日 뉴른베르히黨大會에서 히總統이 聲明한 주데텐獨逸人을 그대로둘수는업다는 見地로부터 獨逸政府는 十七日朝來二十四時間期限으로 急速히動員을 進行하야 豫備兵의招集도 廣範圍로行하는一方 最惡事態에備하야 準備가 進行되고잇다고 傳한다『체코事件』이『事變』으로 進展할것은 方今 時間問題로보이고잇다 아고로 二、三日中이 가장危險視되는바 伯林에서 情報를 綜合해보면 히틀러總統은 췜首相에게 對하야 軍隊에依한 주데텐獨逸人壓迫과 査察을 默認할수업다고 力說하야 獨逸人의 立場을明瞭케하고 何等獨逸의 措置를 束縛할만한言質을 주지안헛다고 解釋되여 獨逸은 今後如何한 行動을取할것인가는 全혀自由인터이므로 事態는 最惡化하야 獨逸의 出動을 보는 境遇에는 獨逸側의 豫想은 如左하다

一、獨逸은軍及機械化部隊의 一齊動員은 체코地方으로부터敵을 奇襲 二十四時間以內에 체코軍根據地를 潰滅乃至 武裝解除시킴으로써 戰爭展開에의 機會를 빼앗는다

一、英國은 結局不得已諒解하고 佛國도 蹶起하기不可能할것이다

一、蘇聯의 自發的援助等은期待할수업다

一、一方獨逸은 항가리의 協力을確保한다

죠지六世 倫敦에御歸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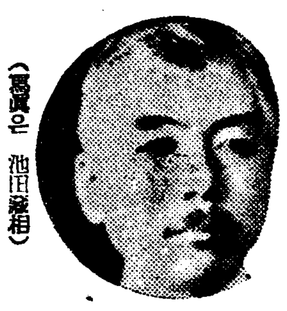
【倫敦十七日發同盟】英帝죠지六世께옵서는 歐洲政局의重大化에 鑑하사 去十五日 스코트란드의 발모랄離宮으로부터 倫敦에 御歸還하옵섯는데 今週까지 버킹감宮殿乃至 倫敦近郊의 윈자離宮에 御滯在待機하옵시기로되엿다 皇帝께옵서는 事情이許하면 近日中에 再次발모랄離宮에 御豫定이신데 적어도 來週末까지 倫敦附近에 御待機하옵실 模樣이다

체코問題御聽取

【倫敦十七日發同盟】英帝죠지六世께옵서는 十七日午後 췜벌린首相을 버킹감宮殿에 부르사 斡旋交涉經過를御聽取하옵신後 버킹감宮殿을御出發 倫敦近郊윈자―宮에 向하옵셧다

黨과 체코政府間의『國際事件』으로發展하엿다고보고잇다 이제

池田藏相時局談



(寫眞은 池田藏相)

【大藏省電話同盟】週末靜養을위하야 大磯別邸에 滯在中인 池田藏相은 十七日往訪記者에 對하야 現下의 時局問題에 關하야 大要如左한 談話를 試하엿다

一、對支方策 漢口攻略도目前에 逼迫한바 我國民으로써는 이것으로 安心하여서는안된다 旣定方針대로 어디까지 蔣政權의潰滅을期하야 長期戰의 覺悟를굿게하지안흐면 안된다 戰局의進展에 伴하야 現在의北支中支의 新政權以外에 軍事據點에 一三의政權이 모두聯合한 親日中央政權誕生問題는 漸次具體化될것으로 帝國은 此와提携하야 事變終局의目的達成에 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이에對하여는 今後作戰의進行과 相俟하야 長期建設의必要가 더욱 濃厚되는터인바 長期建設에當하야 가장困難한問題는 戰局地方의治安維持라는點이다 戰爭遂行에當하야 무엇보다 肝要한 物資動員의問題도 重要點은 治安維持方策의如何에잇는 것이다 此點에 關하야는 我精銳한 軍事行動에 信賴하야 아무런 不安도업스리라 생각한다

五相會議直屬으로 對支中央機關設置 蔣政權潰滅까지長期覺悟必要

一、對支中央機關의 設置에 對하여는 目下五相會議에서 審議中인데 아직 結論에入한 程度로 細目決定을 보기까지는 多少의 日字를要할것이다 五相會議에 提出된 原案은 政治經濟의 機能을 가지게하는것인바 此實行함에는 現在의 外務省官制 或은外務大臣輔弼의 責任이라는 問題에 抵觸하지 안키위하야 目下法制局에서 此點에 對하야 研究하고잇다 東亞局의 大使命에 鑑하야 各機關이 現在하고잇는 事務를 綜合的으로 此에移하게될것이다 例컨대 外務省의對支文化事業部와가튼것도 其中에 包含될것이다 또企畫院第三委員會도 此에 包含될것이다 五相會議에 直屬하는것인바 五相會議와 中央機關의關係는 五相會議는 別로法制機關이 아니고 要컨대 內閣이라고 생각할수잇스므로 中央機關은 實質的으로 五相會議의 對支問題執行機關이라고 생각하고잇다 內地에서相當히 [illegible] 問題이된다고하면 此에 [illegible] 現地에서도 그連絡機關이될터이므로 此點에對하여는 適當한 連絡方法을 講究하게될것이다

一、貿易振興을위하야 商工省에서 立案한 綜合『링크』制의原案은 目下大藏省에서 移納金의調達에當하야 프레미엄問題의研究를 거듭하고잇는바 이綜合『링크』制가 實施된다면 今日까지 比較的不振하엿던 品의輸出도 漸次盛해질것이다

一、金利問題에伴하야 預金利率이 國際利細에比하야 割高이고 此를阻止하기위하야 中央金利子의 引下를 하지안흘가 하는 意見도잇스나 現在의金利水準은 일직 人爲的으로나 무리하게 引下할 [illegible]

一、專任商相問題는 現內閣으로서 商相兼任을 그만두라는 말도 업지안치만 今日까지의 經驗으로 보면 차라리 兼任하는것이 便利하다고 생각하고잇다

체코政府、全國에 非常警戒令施行

【프라하十七日發同盟】체코政府는 주데텐黨首헨라인의 주데텐義勇兵團組織의報道에 接하야 十七日午後 緊急閣議를開催 非常對策을 協議한結果 國內治安維持를 圖謀하기위하야 今後三個月間에 亘하야 체코全國에 非常警戒令을 施行하기로 決定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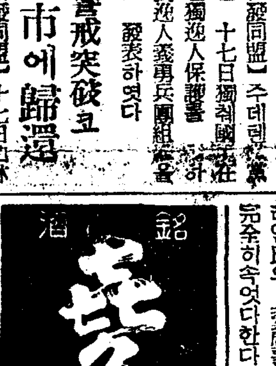
주데텐義勇兵團組織說로

주데텐獨逸人 義勇團을組織

【伯林十七日發同盟】주데텐黨首헨라인氏는 十七日獨國에在住의 주데텐獨逸人保護를 爲하야 주데텐獨逸人義勇兵團組織을 命令하엿다고 發表하엿다 (寫眞은 헨라인黨首)

헨黨首警戒突破코 에가市에歸還

【伯林十七日發同盟】十七日伯林에達한情報에依하면 주데텐黨首헨라인氏는 체코政府의 逮捕令을無視하고 十六日同黨領袖一名과함께 秘密히 에가市에歸還하야 黨本部를訪問하고 地方幹部와協議한後 騷擾事件의 犧牲者를慰問하고 何處인지가버렷다한다 當時警戒中의 체코官憲은 헨라인氏의 姿態를알어보지못하고 完全히속엇다한다



獨、체코人逮捕說 주獨人迫害報復策

【伯林十七日發同盟】獨逸政府는 주데텐獨逸人의 迫害報復手段으로서 在獨체코人을 逮捕한다는 說이傳한다 아바스通信社伯林支局의 체코側에서어든 情報라하야 報道하는바에依하면 十七日 獨逸全土에亘하야 체코人逮捕가開始되어 伯林에서는 이미在獨소콜協會長副會長支配人及 小學校長等을비롯하야 十六人이逮捕되엿다고한다 그리고 이逮捕에關하야 체코公使는 獨逸外務省에對하야 再次抗議한模樣이다

駐체獨公使歸國

【프라하十七日發同盟】프라하駐箚獨逸公使에른스트·아이젠롤스氏는 十七日프라하出發伯林에向하야 歸國의途에 올랏다 同公使今回의 歸國目的은 不明한데

獨체國交斷絕前提?

一方駐獨체코公使마스트니氏도 이미伯林을떠나 프라하에 歸國하야 一部에서는 체獨 外交關係斷絕의 前提가 아닌가고 憂慮하고잇다

佛領印度警備隊 突然本國에急行

【香港十八日發同盟】海防來電에依하면 佛領印度支那警備隊約三百名은 十七日突然本國政府로부터의 命令에따라 即時佛本國에急行키로되엿다 이것은 歐洲政局의 緊張에依하므로보인다

波蘭小數族도 强硬決議採擇

【알소十七日發同盟】주데텐地方의獨逸獨立熱이 노고조에이른 체코國內 波蘭小數民族은 果然活氣를뭇하야、各派聯合會는 十六日他民族과 同等의權利獲得을 체코政府에要求하는 强硬決議를 採擇하엿다 이에呼應하야 波蘭內에잇는 카드빗스波蘭人權利獲得處成分會는 國外에서 各派와 連繫 이를支援키로 決議하

佛首、外相倫敦訪問

【巴里十七日發同盟】달라디에首相、봉네外相은 英政府의 招請에應하야 明十八日午前八時 巴里出發 空路 倫敦에赴키로決定하엿다

英、佛首、外相招待

【倫敦十七日發同盟】英政府는 체코問題에關한 英佛의 共同態度를 協議코저 可及的速히 佛首相달라디에氏 外相봉네氏의 倫敦來訪을 希望하는旨 佛政府에 招請狀을 發하엿다고 十四日正式發表하엿다 佛國兩首腦는 十八日 倫敦을 訪問할터이다

世界週史

馬頭鎭、武穴占領

九江陷落以後 瑞昌方面으로 [illegible] 防禦陣地로 馬頭鎭及武穴鎭에 堅壁을 構築하고 我艦江方面部隊를 極力阻止코저 多數의敵兵陣地를 배플고 十字砲火로써 抵抗하여왓는데 我陸海軍共同作戰의 猛攻에 堪耐치못하고 十四日午前十一時半에는 드디어 馬頭鎭이먼저 陷落하엿다 馬頭鎭對岸의 [illegible]上流의 陣地의 武穴鎭에도 十六日早朝 敵前上陸에 成功한 海軍陸戰隊와 [illegible]木部隊와 此에協力한 江南上部部隊의 猛攻擊으로 함미암아 [illegible]

商城、光州陷落

十四日商城城外에 [illegible] 我快速部隊는 伏兵[illegible] 十六日早朝에 商城東門에 迫到 城門을爆破突入하고 이와呼應 荒鷲飛行隊가 低空飛行을 敢行하야 命中『百퍼센트』로城中의敵陣을 爆擊하고 午前九時에 完全히 占領하엿다 어어서此日午後八時에는 光州東端을 占領하엿고 먼저方家集方面에서 光州에 向하야 進擊한 我末永、黑、前田、三田村、須藤各部隊는 官渡渉附近에서 西方으로 꺽거진 八木、川上、高木、瀨尾、木村諸部隊와 協力하야 午後四時에는 光州北方四키로地點에 殺到、東方及北方으로부터 猛烈히攻擊하야 周章狼狽하는 敵을 물리치고 午後八時에 어를 完全占領하엿다

체코官憲과 주데텐 獨逸人의 衝突

주데텐黨人의 毆打事件을 導火[illegible]

十四日[illegible]이 完全히 占領되엿다 [illegible]으로 체코國內 [illegible] 체코政府가 [illegible] 交涉이 [illegible]를 [illegible]

英、獨兩巨頭會見

國際情勢가 [illegible]에 英國은 [illegible] 베르히테스가덴 [illegible] 히틀러 [illegible] 十五日午後 [illegible]

一、주데텐地方의 獨逸併合實現後는 체코全國을 바키아人에 對하야 民族自決을許한다 以上豫測은 더 다시 體코政府의 [illegible]

一、주데텐地方의 獨立
二、주데텐地方의 人民投票
三、주데텐地方即時合邦

駐英米大使 英首相과長時間會談

【倫敦十七日發同盟】駐英米國大使케네디氏는 十七日夕刻 首相官邸에 췜벌린首相을 訪問 緊急閣議의內容을中心하야 長時間會談하엿다 케네디大使는 이에먼저 十七日에는 午前午後 兩回나 外務省을訪問 카드간外務次官과 會談한일이잇는바 大使의動靜은 체코에關한 米國政府의 關心을 表示하는것으로 注目된다

萬一의境遇豫想 英政府非常處置講究

【倫敦十七日發同盟】中歐의暗雲은 모든境遇를 豫想하고 여러가지 非常處置를 講究하고잇는데 防空對策으로서 無慮四千五百萬의 防毒마스크를 整備 各地方當局을 通하야 可及的速히 國民에配給키로 되엿다 그리고 防空用砂囊도 各各配給을開始하야 戰爭待機 氣分이 濃厚하여젓다 一方十七日 航空省發表에依하면 空軍召募兵三萬一千을 目標로하는 募兵運動은 着着進行 運動開始以來 三個月間에 六千六百八十名을獲得하엿고 前週中의 應募者는 七百名에 達한다고한다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아침에는 商城을 저녁에는 光州를占領。

◇天險 武穴鎭도 命數完全占領。

◇한城 또한城 한要塞 또한要塞、難攻不落도 皇軍아페는 秋風落葉。

◇漢口까지 아으로 百二十連 그須命날字가 내기꺼리。

◇체코政府 주데텐黨解散命令 黨은解散시킬지언정 三百五十萬黨員의心臟이야 어떠케解散?

◇췜、히第一回會見에 달라디佛首相도參席說。

◇第三次會見(?)에는 무首相이參席할걸。

◇堀田駐伊大使 체코問題에關한 獨伊兩國支持確言。

◇이야말로 東京、伯林、羅馬 防共樞軸의再確認。

人事·集會

◀韓相億男爵 十七日府內嘉會町自宅에서遭內艱

日曜氣配

▲期米 資材拂下 不遠說擴大로 變方이躊躇 時機待保合氣配不變

▲株式 歐洲의 空氣險惡과漢口의 戰局進展도 玉整理進行 關係로氣迷 時機待로氣配不變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滿業 [illegible]

(P) エフェドリン「ナガヰ」

包裝 10錠 [illegible] 100錠 [illegible]
各地藥店にあり
大日本製藥株式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類似品잇스니사실때는 반드시(P)印과『ナガヰ』의文字에注意를함

漢城圖書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十卷

人生은짧고藝術은길다!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은 紹介할것도업시 現朝鮮文藝의最高傑作品이다 本社는 斯業界를 斷然一蹴하고 率先하야 巨大한勝物을 讀者諸賢에게 드리노라 雷聲霹靂과가튼 歡呼聲과 暴風雨가티 밀려드는 全國의 注文이 무엇보다 內容의 豊富와 充實함을 證明함이아니고 무엇이랴 讀者의 便宜를爲하야 十卷一時注文은勿論 一冊式注文에도 酬應함。

第一卷 民村 李箕永 作 故鄉 上卷
第二卷 民村 李箕永 作 故鄉 下卷
第三卷 春園 李光洙 作 異次頓의死
第四卷 尙虛 李泰俊 作 第二의運命
第五卷 廉想涉 作 牡丹꽃필때
第六卷 八峯 金基鎭 作 靑年金玉均
第七卷 一步 咸大勳 作 純情海峽
第八卷 張赫宙 作 三曲線
第九卷 沈熏 作 織女星 上卷
第十卷 沈熏 作 織女星 下卷

各冊四六版五百頁 洋裝美麗豪華版
各一冊 定價 一圓五十錢
各一冊 送料 十五錢

特典 一時에全十冊을注文하는분에게限하야 全額의一割引으로提供함

京城府堅志町三二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市內水道擴張難

물은 만하 斷水騷動은 完全解消되나
鐵飢饉으로 擴張計畫暗礁에

소화십일년사월 부역확장에의하야 경성부는면적이 일약삼배늘는동시에 인구도 이십수만명을증가하야 육십오만명이될때라 수도는 급수면적으로나 급수량으로 각절이느러 뚝섬과노량진에잇는 현재의 저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수가없게되엿슴으로 소화이십년까지 십개년계획으로 수도 제삼기확장공사(第三期擴張工事)에 착수하엿다

동계획은 소화삼십칠년까지의 경성부의인구(飽和人口)백칠만명을예상하고 위선소화이십년에는 현재의 급수인구삼십삼만명으로부터 사십육만오천명으로느러 따라서하로의 급수량도 현재의삼만육천입방메ー타로부터 칠만이천입방메ー타로늘리랴는것이다

동계획에의하야 경성부에서는소화십사년도까지 사개년계획으로 공비이백칠십이만원을던저 부외망장리(忘杖里)에수원지를 하나더늘리는공사에 착수하야 명년여름에는 동수원지로부터도 급수할수잇도록 공정을바삐하고잇슴으로 경성부민이 과거에가끔 경험하야온 단수소동(斷水騷動)은 명년여름부터는 완전히 해소되기로되엿다

그러나 이확장계획에전면적으로 큰지장이되는것은 사변에의한 민간용철재기근으로 말미암아 시중배수관(配水管)부설이대다히늘게되여 수원지는풍부하나 시민이수도물을마실수업게되는 딱한사정에잇서서 수도용철재가 국도의제한을 밧는날에는 제삼기확장계획은 사실에잇서서 효과를나타내지못할것으로 수도보급이 인구증가와『템포』를 가치하지못하는바면에는 우물기타위험한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느러 전염병발생등 부민의보건상큰위협을줄것으로 부당국자는 사태를우려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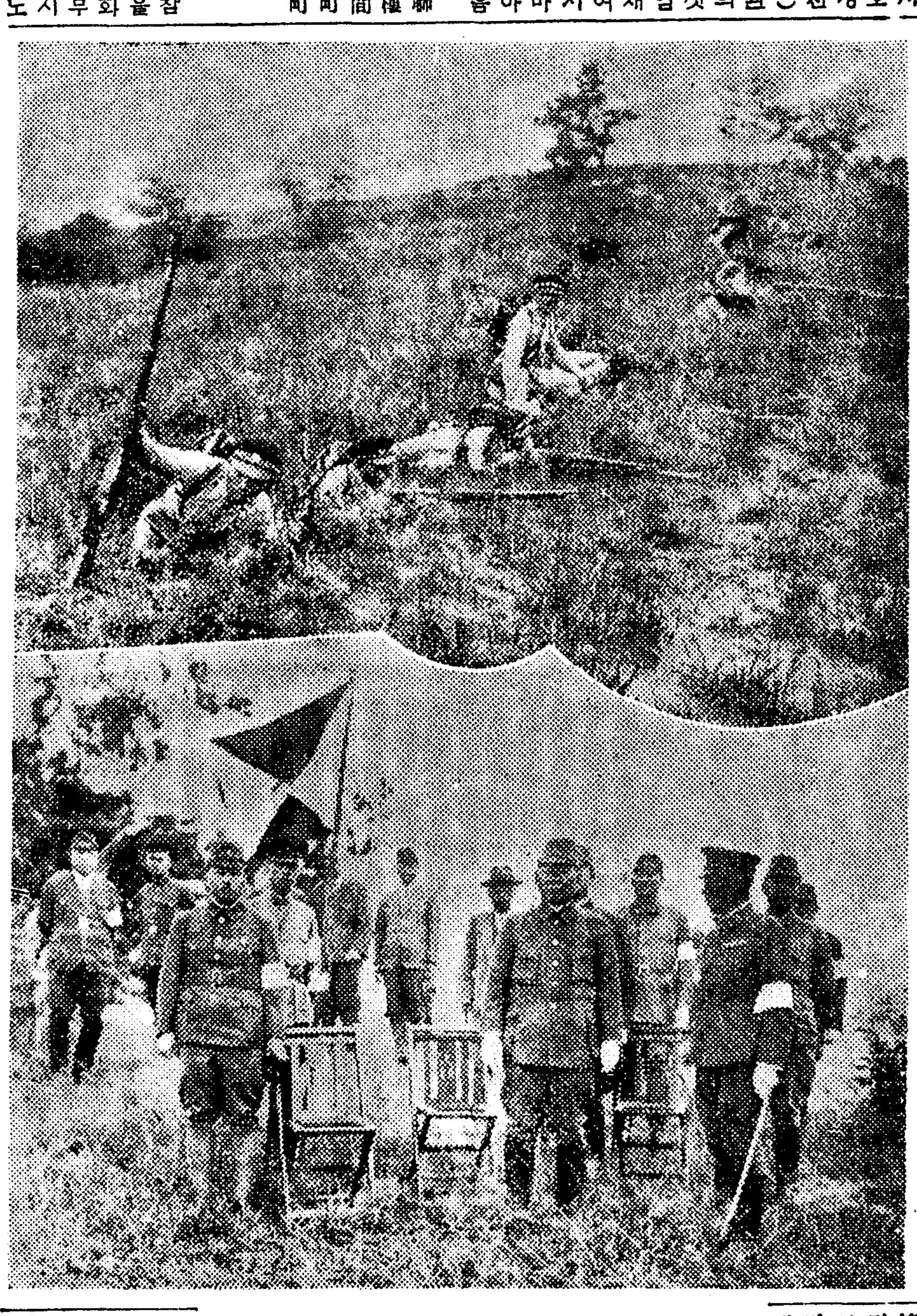
今年計劃은遂行

별항수도용철재기근은 경성부가 지금부터발써 직면하고잇는문제로 금년도배수관신설계획십이선에 총연장팔천『메ー타』는 지금까지에 신설정(新設町)에서 마장정(馬場町)까지의선 (일천오백메ー타) 마장정에서 청량리정(淸凉里町)까지 (일천메ー타)전농정선(典農町線) (칠백메ー타) 등세선에 삼천이백메ー타를 완성하엿슬뿐으로 이것도전년도의〃스톡〃을가지고겨우할수가잇섯스며 남어지 아홉선은 대단염려되던바 최근에이르러서 철재배급증명(配給證明)을 엇게되여 신월일부터나 일제히 공사를시작하기로되엿슴으로 년도안에마치기는 힘들것으로 보힌다 아프로공사에착수할 배수선은다음과갓다

▲漢江通─憲兵隊前間 ▲七九聯隊─梨泰院町間 ▲孝子町─樓上町間 ▲永登浦町─道林町間 ▲敦岩町▲孔德町▲上往十里町─下往十里町間 ▲錦町─桃花町間▲其他不特定線

老翁首自殺

칠십노인이 며누리 구박에참다못하야 얼마남지안흔 여생을 자기손으로 끈허버린 인생애화 십팔일 오전다섯시반경에 부내 보광정(普光町)이백십오번지 뒤소나무 숩에서 목매죽은 노인이 잇는것을 지나가든 통행인이 발견하고 직시 소관용산서에 보고하엿슴으로 동서에서 신원을 조사한결과 이노인은동정삼백구십삼번지 강치원(姜致元)(七〇)으로 원인은 노래에 잔병이 심해저서 자조알는 것을 장남복만(福萬)(三)의처 최씨(崔氏)(二)가귀찬케여여 구박이 심함으로 참다못하여 멧해아니남은 여생을 못기다려 자살의길을취한것이라한다



京城에는"課" 外道에는"係"
經濟警察實施準備進行

전시통제경제의 재편성으로말미아마 나타나는 가장큰경제적상극(相剋)현상인物價 폭등을제하고 폭리취체를 철저하게하기위하야 조선에도 경제경찰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것은루보한바와가거니와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이미이에대한 예산삼십칠만오천원도 통과되고 그관제(官制)도전부 성안되여 심의실을거처서 법제국에회부되여 잇슴으로 관제가발표되는대로 느저도오는시월일일부터는 실시되여 그기능을발휘하리라고한다 전조선에 배치될경제경찰관은 순사가 오백명인데이오백명의배치는수일전에각도에서모다 완료되엿다고한다총독부 경무국경무과안에는 경제경찰계를 두고 이사관한명과게원수명을 둘터이며 각도에는경기도에만 경제경찰과를 두고경시과장을 둘터이고 이밧겻다른십이도에는 각도보안과안에 경제계경찰계를 두어경부로써 그사무주임자로 둘터이고 각경찰서에도 몇몇 경제 경찰계를 두어서 경부 또는 경부보로써 그사무주임자로 둘터이라고 한다 현재 배치한 오백명의 경제경찰을 마련할순사는 현재 이미일반경찰사무에 능숙한 경험만흔순사로써 충당하고 그보충을새로임용한 순사로써 하게되엿스나 이경제경찰의사무는 상당히 전문적지식이 필요하므로 우선 문제되는것은그들오백명의전문적교육훈련인으로 이때문에 시월초순에 경무국에서 전조선각도 보안과장 회의를 소집하야 그강습방법등을 구체적으로 협정하기로되엿다

白衣勇士原隊歸還

동경제일육군병원(東京第一陸軍病院)에 입원요양중이든 용산부대 백이용사염명은 십팔일오후 세시이십이분 용산역착 원대귀환의예정을 변경하야 동네시십분 무사히 도라왓다

兩道의魚貝、菜果
滿洲國、輸入禁止通告
◇…眞池洞外數個所市場閉鎖

【平南支社電話】작십칠일오전에 진남포제련소부근에 들어온 선부 대동군(大同郡)출생 김주련(金柱運)(二)은 십팔일 오전열시에 호열자진성으로 판명되여 동시에 사망하엿고 삼신탄갱(三神炭坑)의 광부서백어(徐白語)(二)은 검변의결과 용성으로판명되어무사하게되엿다 그리고 평남、황해의 해안선일대와 대동강유역에서 잡은 어패류와 채과류는 실시일부로 만주국에서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보가 평남경찰부에도달하얏스며 진지동(眞池洞) 광양만(廣梁灣)용강군의 귀성(貴城)용강온전、서화(瑞和)등지에는 당분간 시장을폐쇄하여 버렷다

制限以前의技術者 爭奪戰이白熱化
當局、强制徵用策講究

전시체제하의 인적자원(人的資源)을확보하기위하야 기술자제한을 칙령으로써 단행하기로된것은 이미 일반이주지하는사실이어니와 이기술자 라고하는것은 명춘에공업학교를 졸업하는사람들지적하야말하는것인데 이법령으로본다면 명춘이전에졸업한공업학교졸업신은 법령에걸리지안흐므로명춘이전의 졸신이면 자유로 행동을 취할수가잇고사용자측사업주도 명춘이전의 졸신이면 자유로 사용할수 잇도록 되여잇다 그리하야 내지의 각사업재벌을 비롯하야 조선내각재벌 사업가에서는 명춘이전의 공업학교(중등학교이상)출신을 절대우대조건으로 수사하는중이다 이에따리서 각대학교수를 비롯하야 중소공업의기사들이 현재공급보다 오할 내지 칠할을 증급한다는 호용한조건에 마음이 움직이여서 잡식적(雜食的)으로 전국의 기술자는 동요되므로국민정신총동원법(國民精神總動員法)제육조에 의하야 실시하는기술자사용제한령즉『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은한층 실효(實效)를 나타낼도리가 업시되는것이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후생성(厚生省)의방침과 보조를 가치하야 전조선의 기술자 (과거를 포함)를 상세히 조사하야 만일의 경우에대비 하기로 되엿다 그리하야후생성에서 준비중인 국민등록(國民登錄)제를 실시하는동시에 일조유사의때에는 강제징용(徵用)하기로 되는 강력적 법령의전조선이다

楓嶽金剛山空中遊覽
愼航空事業社"에어타씨"試乘記

신항공사업사(愼航空事業社)에서는 이십일부터 단풍의 금강산을공중에서보는〃아·택씨ー〃개업에앞서 십팔일은 시내각신문사원을 초대하야 시승회(試乘會)를열엇다

어제까지조튼가을날세가 이날은 아침부터 조금 노한듯도하나 공중여행 날세로는 이만하면 조흔편이다

열시오십분 여의도비행장을떠난 이백팔십오마력의〃비ー치크리푸트〃는 시속이백사십키로의 경쾌한스피ー드로 어느새철원(鐵原)의을지나 단발령(斷髮嶺)의 준엄한고개도 아는지모르는지 눈아래에는 장안사(長安寺)의 큼직큼직한건물이 게딱지가티보힌다

금강산일만이천봉우리중에서 제일놉다는 비로봉(毘盧峯)우에다다르자 우리의택씨는 갑작히고도를 놉히여 이천오백메ー타、눈아래에 버려지는 금강의대자연은 한폭의 입체화(立體畫)그대로로서 천하의 절경을 공중에서 찻는우리에게도 빼집업시자랑하고잇다 공중택시ー는 작별이애처러웁이지 주위를메번이나 갈놓다가 머리를 돌려 온정리(溫井里)를거처 삼일포(三日浦)로나가 해금강 우으로 달려든다 갑작히 눈아래에 버러지는 망망대해 여기에 보히는 큰점은아마도 해금강의 기암이요 저편으로보히는 꼬리가달닌 중잠만한 경정은 어데로인지가는 기선인가보다 어느새한구 갓흔것이 보힌다 장전항(長箭港)이라나 귀로에 오른 우리택씨ー는 월출산(月出山) 금수산(錦繡山)의 태산준령을 한숨에 금화(金化)철원을거처 경원선우에로、새로한지 경성비행장에도라와다 걸린시간이 단한시간오십분 일주일이나 걸릴여정(旅程)도 단한숨에 구름을무삼어보는 대금강의자태는 옛사람이꿈도못꾼 맛다른절경이다 가을이면 단풍으로전산이 불타려지는 풍악(금강의 가을)을 공중행(空中行)은 참으로 유쾌하고도 참신한 〃에아·하이킹코ー쓰〃이다

(사진은우편기)

假齒科醫

십칠일오후 네시반쯤되여 부내관철정(貫鐵町)십팔번지압해길에서 거동수상한자를 종로서원이 다려다 심문한즉 한양정(漢陽町)삼번지의일호 이우철(李雨喆)(二)로서 회중에금니넛는기구가잇는것을 추궁하엿든바 지난사월부터 관철정십팔번지 윤간난(尹干蘭)(三)의 옥니박다섯개를 수수료이원으로 너허준것을 비롯하야 치과의사면허도 업스면서 시내각처에서가튼 행동을한것을 자백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치과의사법 위반으로 엄벌에처하엿다

"中等生徒一萬參加 一大攻防演習展開"
今日午前南部京城中心으로
滿洲事變七周年記念日을卜하야擧行

사변하에 만주사변 칠주년기념일을 마지한십팔일 경기도에서는『경성공략』을 목표로한 유력부대가 원산방면으로부터 남진하야 왕십리(往十里) 동소문(東小門)부근에 도착하엿다』하는 상정(想定)하게 부내일만인중등학교생도 청년훈련소생도를 동원 남부의군에난호아 용산연병장을 중심으로 일대공방연습을 전개시킨다

이날 경사(京師)경중(京中)경상(京商)경공(京工)경동(京東)선린(善隣)보성(普成)봉성(?)의 각중등학교와 망화문、경성、정자옥(丁字屋)의 각 훈련소생도로편성된 북군은 오전여섯시반 장충단(奬忠壇)공원에집합 오전일곱시 용약 남진개시 오른쪽 제일선중대는 일백구십일고지 동쪽에도착 외쪽 제일선중대는 서빙고(西氷庫)남쪽지구(地區)에 진출하엿스며 특별참가의 칠십팔련대 기관총대와협력적의 전진방어의 견고한진지를구축하엿다 일방 용중(龍中)경기중(京畿中)경복중(景福中)경공(京工)경기상(京畿商)양정(養正)휘문(徽文)중앙(中央)의각중등학교용산(龍山)삼월(三越)삼중정(三中井)의각훈련소생으로편성된남군은오전여섯시반영등포부근에집합오전일곱시행동을개시 오른쪽제일선중대는 한강인도교서쪽부근에 왼쪽제일선은 구총독 관서부근에 각각진출 특별 참가의 칠십구련대 기관총대와 협력 북군의 견진을 격파하려고 전투를 개시하엿다 이리하야 격전한시간 장렬한 백병전을 전개한후 양군이 대치한대로 오전열시 휴전나팔과 동시에 전투는 끗낫다 이어서 용산 연병장에집합 연습총감 경기도지사의 열병 심판장 판진대좌(板津大佐)의 시열강평이잇슨후 각지사의 훈시가잇섯고 오후한시에 해산하엿다 (사진상은 학생군의저격자세、하는 관전하는남총독)

社會事業擔任官 百餘名大量增員

전시체제하의 각종국책진동제경제가 직접간접으로주는 영향은 자못적심하야 일반민중의생활은 점차로 빈궁하야저서 사회사업시설의 확충을 단행하지안코는안될 긴박한정세에 직면하야잇슴으로 총독부에서는 약십사만오천원의 예산으로 명년도에 총독부와 전조선각도 경성(京城)인천(仁川)부산(釜山)대구(大邱)평양(平壤)청진(淸津)나진(羅津)함흥(咸興)등 팔부에사회사업담임관을 대량증원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을보면 총독부 사회과에 사무관일명(현재잇는사무관은지방과사무관겸임)、고원팔명、전조선십삼도에 이사관십삼명、속관삼십명、고원오십삼명、전기팔부에 이사관팔명 합계 일백십이명을 증원하야 배치할터인데 관제(官制)개정안도 작성하야 두엇다가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곳제출할터이다 그리하야 전시체제하의 조선사회사업 시설은 맛춤내 면목을 일신할 상당이 정비될모양이다

水災義捐金 (本社取扱)

一金五圓也(新堂町基督敎人一同)
一金拾壹圓九拾五錢也(南海支局取扱分)
一金九拾六圓九拾錢也(景福中學校職員及生徒一同)
一金四拾圓貳拾錢也(京城帝國大學法學部一同)
一金參拾圓貳拾九錢也(平南立石支局取扱分)
計 一金參百七拾八圓拾六錢也
衣類其他七十點
累計 一金 六千九百九拾貳圓五拾壹錢也
衣類其他 貳萬貳百九拾六點

스포ー츠

全日本씨이클 第二日戰續 李君萬米優勝有望

【東京支局發電】第三回全日本學生自轉車競技選手權大會 第二日은 十八日午前八時부터 [illegible]戶山學校大運動場에서 열린바 待望의一萬米 決勝은 午後零時半부터 스타ー트하엿는데 [illegible] 北海新判[illegible] 李相白氏、[illegible] 延專[illegible] 申[illegible]氏等에게 [illegible]을두고 李相白君의 優勝은거의確定的이라고한다 當日夕刊까지의 各校得點은다음과갓다

	릴레	五百	千米	五千
明治	三	四	二	五
慶應	六	一	〇	五
立敎	五	五	五	四
法政	四	一	三	七
延專	二	棄權	〇	〇

段外者柔道試合 西署와京師優勢

東京講道館 朝鮮支部主催의第十二回 [illegible]試合은 十八日 午前九時半부터 長谷川町 [illegible]에서 [illegible]부터 [illegible]이 잇슨後 [illegible] 午後까지에는 西大門署파 京城師範이 優勢를 보이고잇는데 當日夕刊까지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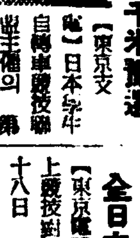
龍山中學 3…2 朝鮮武道館
京城商業 4…5 朝鮮武道館
京城師範 6…0 龍山中學
順道俱樂部 7…0 朝鮮武道館
西大門署 6…0 龍山中學
西大門署 6…5 京城商業
京城師範 4…1 順道俱樂部
順道俱樂部 5…5 京城商業
京城師範 5…0 京城商業
京城師範 7…0 朝鮮武道館
(以上리ー그戰)

北支籠球團 日本、滿洲에遠征

【天津】新民會、天津特別市體育協會、北京市敎育局에서는 北支代表籠球團을 組織하야 지난十五日부터 北京에서 合宿練習을 始하얏는데 十月五日에 日本[illegible] 파滿洲[illegible]한다 一行은 十月十五日 天津을 出發 大連經由로 日本에向하야 日本各地를 [illegible]하고 [illegible]滿洲[illegible] 對戰豫定은 大阪一回、東京三回、仙臺一回、名古屋一回、東京五回、仙臺一回、奉天、新京各一回計十四回인데 交涉如何로는 京城에서도 一戰을 行할수잇슬런지 모른다

學生新記錄 自轉車五千米豫選

【東京支局電話】日本學生自轉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日本學生自轉車對抗選手權大會 第一日은 十七日午後一時부터 戶山學校大運動場에서 擧行되엿는데 날은各種目豫選만을 行하엿는데 出場選手는 [illegible] 大、立敎、法政等 五個團體로서 [illegible]



五千米豫選에잇서서 [illegible]君은 十六分十九秒四의 日本學生新記錄을 [illegible] 一萬米에 [illegible] 昨年의 [illegible] 優勝을 [illegible] 나타내이고잇다

明大7 立敎1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野球리ー그第四日……明大對立敎의 第二回戰은 十八日正午부터 神宮球場에서 開始한바 結局七對一로 明大가 連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計
立敎	〇	〇	一	〇	〇	〇	〇	〇	〇	1
明大	〇	一	四	二	〇	〇	〇	〇	×	7

全日本學生水上戰績

【東京電話】第十七回日本學生水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 第二日은 十八日 [illegible]에서 열린바 이날人氣의 焦點이던 四百米自由型決勝에는 高橋君(慶應)이 堂堂히 優勝하엿다

【百米自由型決勝】1新井(立敎)五八秒八 2佐佐木(日大)五八秒八 3杉浦(早大)一分一秒四 4宮崎(慶應)一分一秒四

【四百米自由型決勝】1高橋(慶應)四分四八秒 2天野(日大)四分五一秒六 3牧野(早大)四分五三秒八 4寺田(慶應)四分五[illegible]

色鉛筆

예로부터 일러오는 말에、부모의은덕은 태산보다도놉고、바다보다도깁다고 이비겨말하는것이우리의윤리생활에 변함업는 근간이되어잇슴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일이거늘 ▲세상에 남의자식된자로서 어버이의 사랑을흠케밧고 을케하리는자 그얼마나되는가 ▲부모가자식을 사랑하는데는 터럭만한 공리심(功利心)도업는법、자식이자라서 식된도리를 찻는데는 이순결하고공고한 마음의 바탕을 닮어 실천궁행하는자 천에 만에 한사람꼴이 되는가▲하도세태가바뀌어매 부모자식간의 전도되는 [illegible] 격하는 작금、방탕한 자식의 [illegible] 지못하야 [illegible] 은어버이를 못모시려하는가 남의일이라 하야

曆

▲九月十九日(月)陰閏七月二十六日 ▲干支 甲寅 ▲日出午前六時十八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八分 ▲日入午後六時三十七分 ▲月出午前零時五十二分 ▲月入午後三時十四分 ▲滿潮(仁川)午前一時[illegible] 午後零時十五分

私立小學校 運動會日程

京城市內各私立普通小學校에서 兒童들의 體育訓練을目標로 秋季大運動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 校長會에서 다음과가티 日程을決定하엿다한다 그리고開始時間은 全部午前九時라한다

【時日】	【場所】	【校名】
九月廿日	本校	加明
〃廿一日	本校	啓星
〃廿二日	(奬忠壇運動場)	長熏
廿三日	(奬忠壇上運動場)	和光
〃	(奬忠壇下運動場)	興仁
〃	(培材中學校)	攻玉
廿四日	(西部運動場)	西氷庫
〃	(同德高等女學校)	同德女子
廿六日	本校	養英
廿七日	本校	華山
廿八日	(京城運動場)	東大門女子
三十日	本校	徽文
十月一日	本校	梨泰院
二日	本校	普成
三日	神武門外	協成
五日	孝昌園	阿峴女子
〃	神武門外	輔仁
七日	神武門外	三興
〃	(培花高等女學校)	培花女子

明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秋期리ー그戰第六日…殖銀對府廳 午後四時五十分 朝鮮銀行코ー트(觀覽無料)
▲軟式野球=京城軟式野球聯盟主催 秋期大會第二日…朝鮮火災對朝鮮送電 午後五時 奬忠壇球場(觀覽無料)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노래『압범』▲六時二五分 講演 ▲七時三〇分 京畿歌謠 ▲七時五五分 라디오드라마 ▲八時三〇分 音樂 ▲八時五五分 獨唱 ▲九時一五分 朗讀 ▲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謠劇 ▲六時二五分 (新京)講演 ▲七時二〇分 (大)日曜演劇 ▲八時 (東)漫談 ▲八時二五分 (大)小說 ▲八時五五分 (東)落語 ▲九時一五分 (城)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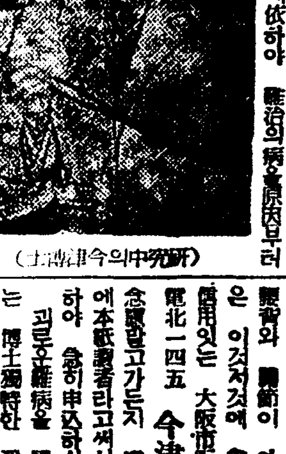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及沿海州로부터 저고잇고 滿洲와朝鮮은 氣壓의谷이되여 弱한低氣壓이 不連續線으로 東進하고잇다 朝鮮은 흐리고 南滿洲는 雨 其他는晴曇不定이고 內地도 흐려잇고 中部地方은날새가조타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리고 小雨가잇슬것이며 明日은흐렷다 개여다할것이다

昨日最高 二十六度九 同最低 十三度四 今朝最低 十五度六 今日正午 二〇度八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今津博士의굉장한研究
不治아니다



(研究中의今津博士)

浄血劑 イマヅミン 感謝의聲 今津研究所 大阪市東區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東洋劇場 劇團靑春座公演 九月十七日부터 李瑞求作 「봄」(春) 三幕四場 「그보다 더 큰일」 一幕 特別豫告 十月一日

工業案內 デリス殺虫劑 南京虫絶滅劑 發賣元 北島藥店 仁川本町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倶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高級萬年筆 特約店大募集 天賞堂本店

時計士養成 京城府敦岩町

朝報案內 懸賞尋犬 古本 事務 音樂콩쿠ㄹ練習 外務

生徒募集 土木課 測量課 大田工科學院 十月一日 考査日 十月五日 入學日 大田府大興町

ゴニバール(金剛) 가니ー네注射藥 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ノ五七

丸山和歌子と川崎豊瀬演 三木ユリ 飯田愛子 泉瀬子 鳥尾寶 クラシドンウヨ 路傍の石 好評に依り續映! 畫家とモデル 十九日より 黃金座

東宝映画超特作 特別有料試寫會 綴方教室 讀書界の話題と新劇界の話題を突破した映畫の勝利!! 今年度の記念すべき映畫! 入場料五〇錢均一 明十九日一日限 若草劇

小作爭議依然激增
惡德地主는斷乎處置
黃海道十七郡八個月間七百件

【海州】황해도지방에는 종내에 중소지주와및 소작관리자들이농지령(農地令)에대한리해의부족과 기타소작법규(小作法規)와정의를 무시하고 소작권을 이동하려는등 전횡적태도를취하야 소작쟁의(小作爭議)의속출로 농촌의평화를 교란하므로 도당국에서는 이들악덕지주와및 관리자들에게 수차의 경고를발하는등 소작쟁의방지에 전력을 다하는중이나 금년중에 드러서도 의연히쟁의가 격증하고잇다

즉 황해도 농무과농정계(農政係)집계에의하면 금년 일월부터 지난 팔월말까지의 여덟달동안에 도내에서 발생한 소작쟁의상황을보면 신천(信川)봉산(鳳山) 재령(載寧)등 삼개군을 비롯하야 도내 십칠개군전체에궁해서 약칠백여건을 돌파하고잇는데 그쟁의원인은 악덕 중소지주급 소작관리인들이 농지령과 기타 소작법규를 무시하고 소작권을 박탈하려는전횡적태도에 소작인들이 반대의봉화를들고 이러나 소작관계의존속을 주장하는 소위소작권이동(小作權移動)이 거의 구할오분을 차지하고 지주측으로부터의 소작료인상(小作料引上)기타가나머지 오분을 차지하고잇다

이상과가튼 실정에 비추어도당국에서는 일부지주와및 소작관리자로써 악덕지주와및 소작관리자들에게 반성을촉진하는 반면에 소작인중에도 농지령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시켜 이러한사태가 발생치안토록 힘쓰되 지주중에서 의연히 종내의인습에 사로잡혀부당한 소작권의 이동파소작료인상을 감행하여 부당한이익을 꾀하는등으로 쟁의를 이르키는경우에는 단호한 처치를 하리라한다

爭議의原因은
地主의無理에잇다
吉田黃海道小作官談

별항보도한 황해도지방 소작쟁의사건에대하여 도길전소작관(吉田小作官)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농민대중의 생업보국(生業報國)의 적성의원천은 전혀농촌의 평화에잇스며 농촌의참된평화는 결국지주와 소작인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히 서로이존하여 공존공영 협조융화의 정신에결합하여서 법률(法律)과도덕률(道德律)을 중히하야 일체의 분쟁을 피하는데잇습니다 농지령은 이러한정신을 기조로 지주대소작인관게의 기준을명률화한것으로 볼수잇습니다

그런데 소작쟁의발생동기를보면 그쟁의의대부분이 일부중소지주와및소작관리자들이지주와소작인의 공존공영의 기준인 농지령과 파거트리며 매저지정신을 무시하고 부당한이익을 꾀하기위하야 소작권을 옮기려는데서 발생되는실정에잇습니다

그래서 일만육천여명의 도내지주급 소작관리자들에게 작년중에 두번이나 기명공첩을 발하여 농지령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케하는 동시에 그의 이해를 엿는데 금년에 드러서의연히 쟁의가증가하여 칠백여건을 돌파하고 잇습니다 민사소송에걸면 모든지주측이 패소(敗訴)될것으로서 지주들의 무리한 주장에기인되고 잇습니다

그러므로 도당국에서는 일부지주의 반성을 촉진하는반면에 소작인측에서도 농지령의주지철저를 피하기로 하엿습니다 운운

海州府昇格따라 "碧城郡"으로改名

【海州】최근양지에 약진하거듭하는 서조선의웅도 해주읍(海州邑)이 오는시월초하롯부터 시제기념일부터하야 부(府)로승격그되기를 보게되엿다한 누보한바이어니와 이에따라 해주군(海州郡)이라 불러지는 어물은 역시 시행일부터 벽성군(碧城郡)으로 개명(改名)키로되고군청의 위치는 해주부근방으로이전될것이 잇서스나 종전대로 현재위치에 두기로 결정하엿다

古阜小學同窓會
母校에浴場設置

【井邑】정북정읍군고부제일심상소학교(井邑郡古阜第一尋常小學校)동창회(同窓會)에서는 모교삼십주년기념(三十週年記念)에 당하야 팔백여명이나 배출된 동창회로서 의의잇는 사업으로서 기념사업에 착가하기로 결정하고 제반행사를 엄숙히거행한결과 현재재학아동의 보건상(保健上)지대한 따거졸깃은 목욕장을 설치하야 매일한차례씩 목욕하도록하기로 논의되여 경비일천오백원을 계상하는 대목욕장공사계하는동시 착착준비에 전력중이라는데 밟서약천여원의 기금이 거출되야 정목교육계에 큰존중을 출만하려라보이리고한다

盛況을豫想하는
全鮮女子卓球戰
精銳選手卅餘名參加

【開城】본보개성지국후원파 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로 개최되는 제오회 전조선녀자탁구대회(全鮮女子卓球大會)는 오는 이십사일오전열한시로 박두하얏다

이번출장선수는 경성(京城)해주(海州)등 여자탁구게에 내노라고할만한 삼십여명의 정예선수가 모다 참가되는바 신추탁구게의 인기를 독점하야 성황을 예기하는데 대회역원은 다음과갓다

大會長 林炳植 副會長 金鶴烱 總務 李炳哲 本部委員 韓奇泳 林敬植 審查委員 崔根善 朴明洙 具然鳳 記錄部委員 玄東炎 徐德均 李長元 金鶴弘

有毒버섯에中毒
兩家族五名慘死
順川과平原兩郡에서

【舍人】독잇는버섯을잘못 따다먹고 두가족팔명이 중독되여오명이 참사(慘死)된 참보가 가울의 순천 평원양군하에서 발생하엿다

◇其一은…순천군후탄면(厚灘面)견룡리(見龍里)사는 한봉섭(韓鳳占)의아들 한용철(「二」○)의 가족사명은 지난십삼일 부근산에서 뜨더다먹은『버섯』에 중독이되여 그장자형택(亨澤)(八)이는 십오일에죽고 그의처(妻)이천국(李天國)(七)이와 차자 성택(成澤)(五)이는 지난 십륙일에 이르러 구토설사를 하다가 필경죽고 말엇다는것인데 지금은 전기용철만이 겨우살어남어서 눈물을 흘리고잇다

◇其二는…평원군 동암면(東岩面)어중시(御重市)신익도(申益道)의집에 세로잇는 김불행(金不幸)(三)의 가족으로 역시그곳산에서 지난십이일 따다먹은『버섯』이 모다중독되여신음하다가 수일전그의처(妻)안나(安羅)(四)와 장녀(長女)(七)두명은맛침내 죽어버리고 말엇다는바전기김(金)은 네살난 장자하나와가치 간신히 살어남어잇스나 그정경이실로 불상한중이라고한다 에·일대비극이라한다

防共協會支部

【淸州】충북도에서는 청주시내 각관공서장 민간유력자 도청내 각과장을 초청하야 지난십칠일 오후한시부터 도지사실에서 조선방공(防共)협회충북연합회 발회식준비회를 개최하엿다한다

婚姻잔체飮食에
十五名中毒呻吟
鐵山宋德奎氏집에서

【鐵山】평북철산군읍내에서 혼례식(婚禮式)의음식물을먹고 중독자 십여인을 내인참극이 이러낫다 지난십사일 당지중부동거주 재산가 송덕규(宋德奎)씨집에서 혼례식이잇서 일가친척파 린근 사람들이 만히 모여 당일면파고기를 손님에게 대접하엿던바 친족파 동민십오명인의 중독자를 내인사실이잇섯는데 아직생명에는 관계업스나 당지경찰당국에서는 방금조사중이라한다

安州地方의救濟熱
卅餘圓收合寄託
本報立石支局에

【立石】참혹한이생자를내인 미증유의 관북(關北)대수재로 말미아마 수십만이재민(罹災民)의 참혹한정상에 잇서서는 이미누차 본보에보도된바어니와 이소식이 세상에전해지자 구룩가티 모이는 각지방의 눈물의 성금(誠金)은 실로뒤를 이어 그칠줄을 모르는중 평남안주 본보입석지국(立石支局)에서도 구제의연금(救濟義捐金)을 취급케되엿던바 그취급액과 의연부인씨명은 다음과가트다

金三十圓二十九錢也

內譯 氏名

金一圓式金泰華 朴學珍 金一圓式金士欽 孫膺萬 金鴻植 金泰衡 李三校 金泰夏 崔賢浩 崔成岬 黃信五 崔星德 朴來熏 金炳鎭 金五十錢式崔有燁 劉承寶 李承華 宋永道 李昌鎬 康仕洪 李昌道 徐益善 崔鍾亨 尹致文 崔龍翊 尹東浩 張錫翊 徐成猷 李鶴俊 安仁德 金鳳仙 朴吉善 黃道吉 李允柱 韓平國 崔福女 林應寶 孫膺善 金二十錢式金壬玉 李實彬 金基周 梁承才 朴致玉 文永道 金二十錢式表允吉 李成三 金文鉉 金十五錢梁周甸 金十錢李在燾

以上合計 三十圓六十錢內 送料三十六錢除 實三十圓二十九錢也

照明弾

배일하에 폭로되는 중앙무진(中央無盡)의 죄상은 넘쳐을 처들면 그종말은 어디까지 뻐칠른지? 그리고피해자는 얼마나될른지?

◇ 이사실이 보도되자 춘천(春川)에서도 경찰서원이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하는중이라고

◇ 거문품에는 더럽혀지기 쉬웁고 돈을만지면 축내기쉬운것이라고는하나 가튼돈이것만 그사람을 따라다른것

◇ 만원가진사람에게서 만원을착취함보다는 십원가진 사람에게서 십원을 속혀먹은 소행이더욱 괘씸한일

野菜栽培部落
十二個處設置

【平南支社發】평양부내에서 소비되는야채(野菜)는 백십여만원에달하여 금년은예년보다 상할이상의 폭등을보고잇다 이소비량가운데에서 삼십오만원이상은 도외에서이입되고잇는상태이므로 평안남도에서는 야채의 자작자급을목표로 재배의지도 생산의개량 판매의 알선등을 도모하는한편 보조금을 지출하여적극적지도를 도모하여 지금까지설치된 야채재배부락이 십이처에 달햇스나 역시야채의 부족은계속되므로 금년에도 새로야채재배집단부락십이개처를 평양부의 인접지대인 대동군내에 설치하고보조금을 지출하여 적극장려하기로되엿다

玉蜀黍脫離機
金基健君發明

【新義州】평안북도는옥수수(玉蜀黍)의특산지로 년산사십만석에달하야 벼농사에 다음가는농가의 중요한 생산품이다 그러나그옥수수의 알맹이를 떠는방법이업서 농가에서는 크게고통이든바 평북용천군 동하면법흥동(龍川郡東下面法興洞) 김기건(金基健)(三)씨는 이에대하야 다년간고심연구한결과 금번옥수수탈리기(玉蜀黍脫離機)를 발명하얏는데 그기게는 타면(打棉)기게와 비슷하나 그리 크지아니함으로 겨울에는 방안에서 도

棉使用制限에따라
操綿業者大打擊
不得已"토리개"를使用

【江西】현하비상시국으로 인하야 모든물자절약파 사용제한을 밧게되자 그에따라 솜(棉)제한을 밧게된 평남강서군에는 산면고(產棉高)가 년이백일만팔천근이던 작년도에 공판된것이약십칠만칠천여근으로 되여잇스나 금년에는 백이십만근을 출하(出荷)하라는 통제를밧게되여 강서군하에는 일반농가에서 사용할 솜은 거의 업서지게 될지경에 달하엿다 그리고 자가용면경작(自家用棉耕作)을한 가정에서도 반분이상을 공판지장에 내노케하고저 군농회에서는 면작가정에『비린』이 만매를 인쇄하야배부하엿다

그리고는 일체개인 가정에서는 매매를 불허할방침으로 솜을가지고도 조면(繰綿)을 할수업게하엿다 그래서 강서군하의조면업자(繰綿業者) 오십여명은현하시국에 방응하야 천연휴업상태에 안될지경에 달하엿스며 군면작기수(技手)는 각조면업자를 순방하며 시국관게로 조면을금허하게되엿다고 양해를 어더영업허가증(營業許可證)을 밧치게하엿다는데 그에따라 일반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옛할머니들의 기억에 남어잇는『토리개』가 농촌가정에 나타나게되여 일반가정에서는 대단히 불편을 느끼게된 모양이나 시국에 방응하야할수업는 일이라하여『토리개』나마 마음대로 조면할물이 업슴을 우려하야 마지안는다고 한다

地方人事

◆蔡大植氏(永興慈惠院)新任人事次本報興城支局來訪

◆孫洪濟氏(東興漁業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社興城支局來訪

長篇小說
林巨正 【163】
洪碧初 作 / 金熊超 畫

평산섬 (四)

리춘동이가 김산이더러 어물전에서 서사나 자인노릇을 하는나 어디서 무엇하고 사는냐 못는것을 김산이가 어물어물 대답하니 이춘동이는 자기를 외대한다고 골을 펄쩍 내엿다

『이사람 꿈내지말게 내 일신상일은 나중 조용이 만나서 다 이야기함세』

『내가 자네들을 다 알구잇네』

『다 알면 왜 뭇나』

『자네 말을 들어보려구 물엇네』

『이사람이 뒤 등을 치는셈인가』

『자네가 적성가서 아전다니구 아전내놋든뒤 마전됩혀가서 살지안햇나』

『내말을 자네가 뉘게서 들엇나』

『못지안쿠두 아는수가 잇지그려』

『이보(耳報)하나?』

『자네짐작이 용해 내게 이보해주는 청의동자(靑衣童子)두 잇구 내분부를 거행하는·신장(神將)두 잇서 조심하게』

이춘동이의 끝은 바로 풀리고 김산이의 말은 조금 떨떨울하얏섯다 리춘동이가 김산이의 내색이 달라진 얼굴을 드려다보면서 싱글싱글 우섯다

『왜 웃나』

『내가 신장을 부리다니까 겁이나는모양일세그려』

『자네가 신장을 부리기루 내가 겁날까닭이 잇나』

『잇가 내가 자네 팔을 잡을때 왜 그러케 질겁을햇나』

『또바게 팔을 붓잡으니까 잠간 놀랏지 질겁은 무슨질겁이야』

『실언(失言)은 고만두구 내가 올여름에 십오륙년만에 서울을 갓섯네 서울서 나려오는길에 자네가 그저 고향에서 사나 하구 자네집을 동네를 차저들어갓더니 아는얼굴이 어되 하나나잇든가 그래서 한참 공연히 돌아다니며 이사람저사람더러 물어보다가 퉁우나오는데 동네아페 큰오래나무잇지 그오래나무는 그저 잇데 그나무아래서 얼굴이눈에익 보이는 늙은이를 하나 만낫네 그늙은이가 자네집 이웃에 살든 최생원이데 최생원이 자네가 적성으로 이사간것을 가르켜주어서 이왕만이 내킨김이기에 적성까지 갓섯네 적성가서』

리춘동이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김산이는 누가 잠아일오키는것가티 벌떡 일어섯다

『이야기 듯다말구 왜 일어난』

『그러니이야기는 나중 틈이 조용히 만나서 하세』

『그럼 나는 먼저 나려가겟네』

하고 리춘동이도 따라일어섯다 김산이가 오루머니 서서 산아래로 나려가는 리춘동이를 바리보다가 다시 산역하는데 와서 일을 보앗다

해질녁에 상제(喪制)이 들어와서 전(奠)을 지내다 상두군들을 먹인다 한참 수선한중에 리춘동이가 저녁먹으러 가자고 불르러와서 김산이는 갓가스로 틈을 타서 주상(主喪)하는 늙은이에게 의외에 녜친구를 만나서 그사람의집으로 저녁밥 먹으러간다고 말하고 리춘동이를 따라왓다 리춘동이의 집은 산미례잇는데 집이 커서 여럿에 한이시가되는것 가태다 바갓방은 치지말고 안으로난 방이 세인데 그중의 제일적은 아랫방도 간반이 이간가타 넓직하얏다 이춘동이의 어머니는 환갑이 이가 취겸서이 너머보이도록 나이보다 더 늘것고 이춘동이의 안해란 안해처 첫인지 춘동이보다 근이십년 아래될듯 점머보이엇다 김산이가 이춘동이 끄는대로 먼저 춘동이어머니 거처하는 건넌방에 들어가서 잠시동안 안저잇고 건너방에서 나오는길에 춘동이내외 쓰는 안방을 드려다보고 나종에 아랫방으로 나려와서 엽마아니잇다가 저녁밥을 주인은 두사람이 겸상하야 먹는데 닭을 멧마리나 잡앗든지 국에도 닭고기요 지짐이에도 닭고기요 구은고기도 닭이요 복근고기도 닭이엇다 반주먹고 밥 먹고 다 먹은 밥상을 내보낸뒤 이춘동이가 김산이더러

『인제 자네이야기를 좀 듯세』

하고 말하얏다

『재미두업는 이야기를 뭇기가 그리 바쁜가』

『대체 자네가 지금 어디잇나 금교역말 잇나』

『나잇는데를 몰라서 궁금한가 황해도 서흥땅에 잇네』

『정당하게 뭇는데 실업슨말루 대답하는것이 그게 친구대접인가』

『이야기를 하자면 숨서차리해야겟네 우선 자네가 나를차저다니든 이야기부터 마저하게 그래 적성가서 엇더케햇나』

『적성가선 마전으루 이사갓거옮기루 도마전가선 기집년파 속가튼놈을 죽여노쿠 도망한것을알엇네』

『그러니가 그년놈 죽인놈이 일부터 이야기하게네』

하고 김산이는 지나간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얏다

本社 廣告部 電本四三〇八 販賣部 電本六三一〇番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總クロース金文字入箱入製本 堅牢美麗な製本 千五百頁大冊 厚さ二寸七分 収容字數約二萬有餘 天下一品の漢和大辭典也
内容は從來の漢和辭典の不便不備を除きたる最新式で小學校を出た子供でも自由自在に引ける事が出來る實に理想的の大漢和辭典なり●今回五千冊限り急速處分の爲め大安値で投賣す新本や古本に非ず最新刊美本
御注文は至急を要す 近い方は御來店御買物願ひ遠方は御送金共一圓五十一錢
大阪市東淀川區 振替大阪五一六二一番 會社 國民書院日報係

後援 朝鮮軍報導班
長鼓峰事件展覽會
會場 七層갸라리ー
會期 九月十七日부터二十五日까지
張鼓峰事件에잇서서 我皇軍勇士의 武勳에依한 鹵獲兵器의 戰利品實績寫眞等을一堂에陳列코 展覽케되엿습니다 誠意를다한 아모조록한번보아두십시요
◎皇軍慰問袋賣出 (一層) 一圓부터調製하여드리나이다
◎手編用毛絲各種具備 (三層)

和信

●宿醉 ノーシン(노신)
엇지머리가무겁고 졸음이오고흐리하던때에모다괴롭은때
옵지수시요▲頭重과腰臟은언제서서頭腦는깨끗하고爽快게됩니다▲宴會에는꼭必要

現代朝鮮文學全集第七回配本「戲曲集」發賣中 定價一冊一圓二十錢 送料二十錢

모-팟상小論

—그의短篇集을읽고서—

延禧專門 吳龍淳

오래인 宿題였던『모-팟상』의 短篇集을 今年放學에 읽엇기에 여기簡單히 느낀바를 적어보기로하자。

短篇小說하면 누구나『모-팟상』을 聯想한다 웨냐하면『모-팟상』은 近代短篇小說을 나흔 어머니요 아버지기때문이다『데카메론』에서 뿌려진 短篇小說의 씨가자라서『랜포』『모팟상』『체홉』等으로 말미아마 完全한 型과스타일을 가추엇다하야 그巓峰에서 자라난가지가 近代短篇小說이니 그中에도 가장만흔 後輩와 讀者를가진『모-팟상』의 이름을 외는것은 當然의 法則일것이다。

西曆一八五〇年 佛蘭西北部『노르맨디-』의 小村에나아 中學을 마친後 約十年間 海軍省及文部省의 屬官을 지나여 외갓文學的修業을 게을리 하지아녓다 그가 三十歲때에 處女作『脂肪의덩이』를 發表後 不過十餘年間에 六篇의長編小說과 三篇의放浪記錄과 二百餘篇의 短編小說을 남기고갓스니 그의努力을 미루어아리라。

十九世紀中葉에난『모-팟상』도 勿論自然主義派다。허나 自然主義 主唱者인 졸라보다『모-팟상』의 스승『푸로벨』보다도 文學으로서 自然主義를 完成한사람은『모-팟상』이다。浪漫主義의 玲瓏한 무지개 속에서 平凡하고 醜穢한生物 人間을 되차저온 自然主義文學의 特徵은 구지 말할것업시 (一)現實을 그대로 (二)無技巧한 客觀的描寫 (三)主知的이면서도 感覺的인것 (四)藝術至上主義가 아니라 現實生活의 體追을 그대로 取扱하야 社會上,宗敎上,道德上의問題를 直接으로 描寫하는生活爲한 藝術인것等 이가든 自然主義를 가장 完璧하게한것이『모-팟상』이라면 누구나그를 배우지 안흘수 업슬것이다

그의小說을 읽을때마다 숙혀지는 冷靜한 純粹한 客觀的描寫에는 讀者로 하여금 情을 견딜수업게한다 나도 이無同情한『모-팟상』을 몃번이나 驚햇더구나 그中『파렌氏』를 읽을때는 책을 찟고시펏다 그러나 모-팟상은 톱을 만히먹을수록 擬定하고 地下에서 微笑를하리라。

그의 科學的立場에는『리알리즘』을 그의地中海 放浪記錄『水上』에서 이러케 말하엿다『그는 一重의넉을 가진것가티 보엿다 그하나는 이웃사람의 個個의 心情에 着眼하야 一一이 說明하고 批判하는點이 다。自己及他人의 反映으로서 生活하는運命을 가젓다。또하나는 다못 傍觀하고서 感動하고 行動하고 사랑하고 思考하고 煩悶하는 自己를 觀察하고 다른사람들과가티 喜悲에處하야 自己自身을 解剖하지안코 自由로單純하게 爽快하니 或은 슬프게 生活할수업는 運命을 가젓다。例를들면 그가 어떤女子를 사랑한다면 그는 病院에서 死體를 解剖하드시 그女子를 解剖하리라。그女子가 말하고 行動하는것은 全部 그의心中에잇는 觀察의 微妙한 衝路에다 너허보고 재여보고 創作上의 價値에應하야 心中에서 摘記된다。萬若 女子가 突然한 衝動을밧고 그의몸에 매달리기라도하면 그는 그것이 어떠한 動機엿다는것과 그것이 올헛는가 안흘럿는가 하는것과 그하는 行爲이 自然的이냐를 가질는가 못가질는가하고 判斷한다。그리고 그것이 故意가든지 또는低劣한 方法이라고 生覺하며 默默히 그를 拒絶하리라。그는 이와가튼 自身이 他人의 侮辱이기도하고 또求愛者이기도 한다。平易하니 世上을 보내는 善良한 俳優하나뿐이 아니엿다』

이는곳 모-팟상自身의 創作態度엿스며 作品의 一重性이엿다 여기에 對하야 톨스토이가『人生의意義를 풀지안코 世態에動搖치안코 愛憎의생각을 끼우지도안는 다못 人生그대로인것을 그리는 名畫家『모-팟상이라』하는 比喩는 適切할것이다。

『모-팟상』의 文章은 實로天下一品의 絶技이다 極히 自然的인 勁健한 筆致는 가을하늘처럼 透徹한直截明暸한것이다。

大體로 自然主義派의 文章은 다가튼 傾向을 가지고 잇스나『모-팟상』처럼 單純하고 正確함은 到底히 他의追及을 容許치안는다。더구나 그의大膽한 省略法은 讀者로 하여금 豪瞻의 默徵이생길 餘裕를 주지안호며 지리한描寫란 어느頁을보아도 하나도업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것은 어떤 形式的方面보다도 內容的 方面이다。人間에對한 偉大한慈愛—그의 深刻한 洞察力과 人間의 暗黑面을 들추도되가는 精力과 根氣—하야 醜하고 殘忍한 더럽을 들추나온 새光明 어는 마땅히 이땅의 作家들이 배워야될바이며 不可能하다면 模倣이라도 해야 할것이다。여기에 比하야 이땅 文人들을 보라그 곰팡이내나는 常識的인觀察과粗卒한態度는 참으로唱世가날地境이다 一一이 例를들어 對照해보면하나 紙面關係가 許諾지안흐니『모-팟상』의作品만을몃가지 들어보자。

『호루라』—恐怖에서 恐怖로또 그恐怖속에서 나오는 魔手로미처버리는 戰慄。

『秋波에罪잇다』有閑마담어 娼婦의 흉내를내다 貞操를 더럽히는 뿔조아社會에對한 무서운 抗議。

『하리에트嬢』—禁欲을 信奉하던 四十女의 煩悶과 그의奇怪千萬인 强烈한 人間의官能。

『狂人』—生과殺을 同等으로是認하고 죽이는것에 非常한 快味를 느끼는 高等法院長의 手記 惡魔的이라고 否定할수업는人間의 殘忍性。

『港口』——港口를 차저든 水夫가 人肉市場에, 들어가 자기누이와가티 罪를 지을라다 正體를알고 밤새여우는 運命에 對한 感傷主義。其他 何如튼 이 天才狂人 모파상의 短篇은 人生의 피흘으는 살로만것들도막 그것들이다。거기엔 藝術가튼 藝術도잇고 우리의 心靈을울리는 가지가지의 殘忍性도잇고 動物그것가튼 性慾도잇고 社會에對한 울고시픈 厭世主義도잇다。同情을 식혀하는 피끌른 民族愛도잇다。그리고 朝鮮文壇에 보기드믄 恐怖의記錄도 잇나니—特히 이恐怖의心理 가든것은 어떤의 純文學에서도 取扱할 새課題가 아닌가한다。

끄트로 一言할것은 이땅先輩들의 藝術에 對한 態度이다。不過二十年남짓한 우리 文壇에 조흔作品 世界一流의 作品이업다고 不幸만한다면 그도 무던이 愚人일것이다 적은花盆에서 커다란 배꼿치 안피고 眞美한 藝術가 안되는것은 萬有引力說만치나 眞理이기 때문이다、

허나 藝術을 愛讀하는 態度 人生生活에 對한眞正한 生의追求者 例를들면 모-팟상가튼自己의 藝術을爲하야 人生에잡生活을 찻기爲하야 狂人이되여癲狂院에서 悲慘한 最後를마치는 이러한 生命과藝術을 가치하는 態度는 맛당히 이땅의藝術家도 가저야할것이다 아니世界 어떠나라보다도 强烈하게 가저야할것이다

그러나 보라!이땅의 先輩들을 어제文學에서 오늘은 通俗作家로 오늘 괴꼴른詩人이 來日拜金主義者로 어래도 藝術家이라고 한때는 風靡처럼 배를 내밀고 自負하앗슬것이니옷으울일이다。멋멋나븐 旣成作家를보면 더욱寒心하다。自己는小說家다 詩人이다라고 藝術이라면 自己獨占物이나 되는것처럼 行世한다。生活도업는 허수아비들이 凡上에 안저서 原稿紙遊戲를 하는꼴을보면?

그네들은 애밋喜라가 그의『숨집』을 지울때 一一이 그의生活에 投身하야 一千七百頁의노-트를 햇다는것을 어떠케여기는지?『先輩들이여 後輩들爲하야 自重하소서!』이는 나혼자만의 소리가아니리라。

여기까지 쓰고보니『모-팟상』의 行路가 一轉際히 보이며 그의生涯가 겨우 四十三年으로 마처다는것을 哀痛할뿐이다。

—(끗)—

【詩】 農村

普成專門 權錫厚

찌저진 수수깡 넘어로
술기찬 구름에 휘감긴 초생달이
燐火보다도 蒼白한 얼골로
靑春과 古典을 꿈꾸는밤

×

다소곳 하게
손목하고 돌라 안진 여인네
콩밧에 피엿든 여름사리에
풀으죽은
朝鮮의 情緖는 달궈진다。

×

간간히
헐린 돌담새로
시름겨운 실솔성 잣고
옥수수 닙닙에우는
베짱이에 바디가 交錯된다。

—八月二十九日

【詩】 街路樹

京畿中學 崔載亨

열적기 情熱을 맛보지못한거리의 女人—
街路樹는 술픈『로맨스』를 가젓다。

한낫, 짐씨의 褪色한 꿈들이 오고가고
都市의 風景은『파노라마』처럼 돌아간다。

해너머가고 九月바람 한오리 휘 지나면
街路樹는 닥처올 運命을 咀呪한다。

밤안개 潮水처럼 밀려드는 거리
조으는 장명등엔 寂寥의 使節이 깃들이고
街路樹는 지리한 꿈을 그림자에 누이다。

사랑이 업는 鋪道우에 나어린 詩人하나
北國이 그리워 휘파람 처며 도라가고
街路樹는 멀리 별동을손짓한다。

오오 어밤엔 로만스가 멋개나 또 뿌렷나。

【詩】 一夏日三題

延專 柳玲

달

달아
눈을 감겨어라
空想의 나래 부러지면
먼 나라의 꿈들이 꺼진다。

부채

볏치 쪼이는 한낫이 그립다
바람은 싫허
나를 病床에 미려
버려두지 마러요。」

그늘

나하나 감춰줄 그늘
無情도 하다
웨 자꾸 옴겨만 가나
내가 그리 미운가

日曜日

徽文中學 洪性五

晝筆드러본지도 오래다 오늘은 기여코 寫生을 한번 해볼작정으로 일즉朝牛에 일어낫다『水彩畫具』과 鉛筆을 손에들고 屋上으로 올라갓다 꼿꿍라사이로 불어오는 아참바람은좀 어듯도록 싸늘하고 무섭게 개인한울에는 구름한點 안떠돈다 비오신다음날아침은 눈이부시게 明朗하다 아모리 四方을 훌터봐도 마음끄는 材料가 안보인다 마즌便 日本집二層에는 아직도 한婦人은 깨지도 안엇다 어제밤 늣도록 燈火아래서 조구리고 일홉하드니 疲困히 困한모양이다 억지로라도 前에그린것을 다시한번 寫生해볼라고 하얏스나 도모지 그럴氣分이안난다 할수업시 그대로 屋上에서 나려오고말엇다 다달冊어라도 좀볼라고 어떠月刊을 펴노앗스나 그곳에도亦是 精神이모이지안는다 劇場에나 가볼까하고 생각해보앗스나 映畫가 雜하고 劇場門을 나설때의 不快感을 豫期하고 그곳에는 그만두기로햇다。

속이밧지안는 朝飯을 마첫다 나는 늘그이가 만든飮食을 먹으면서도 그이를 信用하여 맘노코 먹어지질안는다 나는 無趣味級의 女人들이 닥치하여 女人들의 有識함을 渴望하얏스나 近來에 이르러서는 그러한類의언屬히女性들이 더욱 시러진다 地獄을 봅시무서워하면서도 宗敎家인 그이의 행실은 그리 마음에 들지안는다 그러가고 생각하면 그이의 어린 아들들의 얼굴이 엇시녁갓다

禮拜堂의 鐘소리를들으며 大漢門안에 들어섯다 德壽宮에는 어번이 처음이다

불어오는 微風에 잔주름을집는 늪가운데는 睡蓮이 가득하게 집으려지고 붉고 누른꼿치군데군데 옷는다 花에 섬은薔薇의 겨우 비저낸 마지막꼿송이건만 아름답고 香그럽다 몃가지안되는 새들은 모두 文鳥、紅雀、비닭기、꿩、孔雀、九官鳥、鸚鵡等의 사랑스러운 愛玩用鳥이다『조단자나이요』를 연거퍼 웨치는 九官鳥는 德壽宮의 大유-모어리스트다 [illegible]미레서 幼兒의 立像으로된 噴水를滋味잇게 바라보다가 美術館으로들어갓다

高麗磁器는 어데가 잘되엿는지나는三盲人이다 朝鮮畫家들어그린 繪畫는 大槪가 낫설은 風俗畫들이다

現代日本美術의 繪畫와 彫刻은 나에게 만혼 感激을 주엇다 平案에 조하하던 石井柏亭과 色彩가 豊富한 南薰造의 作品도 밧가이 보앗다

石造殿을 나서서 조충거름으로 나오든길에 나는 한무리의 女人을 引率하는 빼리빼리하게 洋服을한 어떤靑年의 뒷모양을 보앗다 꼭 어되서 본사람가타서 혹씨라고 멈리서 그의엽얼굴을 보앗드니 果然 그엿다 그는 지난번에 車에서맛낫던 사람이다 그가 開城서 올기에 여페 자리를 내주고 朴淵等의 名所에 對해서 물엇다 그는긂은音聲에 內地말석긴 朝鮮말로 說明해주엇다 그리고 그는얼굴이 妙하게도 恰似하얏處女와 同行이엿다 나는것 그의 누이동생인줄 말엇시도 알엇다 나는 그의 오누이를보고『愚氓』을聯想햇다 卽 그 스토리中의 최건영의 오누이를 聯想한셈이다。그들 오누이의 擧動이 어지간히도 作品中의 人物과 비슷하얏다 그러나 웬일일까 저가운데 누이되는 所謂『옥전』이가안석겻스니 落心하고 自殺이나하지안엇슬까? 라고하는것은 나의 白日夢이지만—

午鐘이 울자 곳 大漢門을나섯다 집에 도라와서 산보하는 장판우에 新聞紙를 깔고 벌하니 누엇노라니까 大門두두리는 소리가 낫다 故鄕에서 上京한 K兄이다 곳 그와가티 麻浦姑母宅을 차젓다

父子間의 不平으로 勤務中인 電車車掌을 그냥 내버리고 行方不明이된 S의行方은 아직도五里霧中이란다 S의어즈머니는얼골이 헐숙햇다 家勢의 窮해감과 夫君과의 作別로依한 愁心으로 困한모양이다

大門에서 찻는사람을 세채가마지한즉 S가 京龍서 退職하는데 보내는 膳物을전한다

행허나 漢江에서나 犧生을해볼까하고 스캐취북을끼고 동둑으로 나왓다 바람은 본때업시차고 누른빗지는 막날리든다이곳에서도 目的을 達치 못햇다 여상히도 기운여 풀리고 頭痛이난다 나는 大失望을하고 매번에 집으로 드러와버렷다

집에는 편지한봉이 배달되엿다 그것은 오래간만에도 시골兄께서온것이다 勿論 아버지께온것이다 內容은 집사게 돈푸面만 돌려달라는것이엿다 그리고 아즈머니는 황달병이 돌리섯다고 아아 —끗—

理想과社會

大東商業 全泰河

우리들은 寸時라도 社會와没交涉을해서는 生活하지 못한다 絶海의 無人島에 漂着한『로빈손·크루-소-』가티 홀로히 生活하지못하며 社會를 構成하지못한다 地球우에居住하는 數十億의 各種民族으로부터 數十人으로構成된 一部落에 이르기까지 社會를組織함에는 線合이업지만 적어두 두사람以上의 共同生活이 必要한것이다 그리고 이 社會를 構成하는사람은 그들의얼골이 各各달름과갓치 그思想도 달르것이다

貧困한者는 힘 곳努力해도自己의生活은 언제든지 苦痛과가우고 마치資本家地主의 商品모양으로 使用되며 몸에는 粗衣을걸치고 貪飮과가튼 食物을먹고 그리고 不自然한生活을繼續하여 逢頭蓋顔痩身을 해가지고 處空만바라보며 自己의 不遇를嘆息하며 社會의欠陷을 부르지젓고대자 그地位는依然하앗으며 子息들만 漸漸 增加해져서 一層더 生活에 不安을늣기게된다

亦他 一方에서는 生活에 不自由는업지만은 배내病身이엇으며 癩病이라고하는 남들이 嫌하는 病者는 健康한 사람들사는한곳에 잇술수업서 各方에流轉하야懷抱하던 親兄弟妻子와 同居치못하는일도잇고 或은 日常役業로因하야 藥과 親하야 하로라도快活한生活을하지못하며 或은遂의 傳染病의 蔓延을바더 隔離된 寂寥한病室에서 呻吟하는일도잇서서 어와가튼 疾病으로因하야 참다운人間의 生活을못하는사람도 적지안타。

또이外에도 우리들이 게장흐却치못할것에 犯罪가잇다。犯罪는 遺傳과가티 예부터 傳하야왓지만 現在의統計를본다면多少은 周圍環境과 習慣性의것이만어서 遂年增加되는 傾向은잇서도 減少되는 傾向은업서서社會生活과 親한 善良한사람들에게 畏怖와 恐怖의感을 주어서 社會를惑亂하게하는일이만타。

以上세가지를合해서 社會에三大惡이라고學者는말하엿다。

어세가지 貧乏, 疾病, 犯罪를여社會에서 驅逐하므로서 完全한社會를 이룰수가잇다 理想을想의 社會를 現出시킬수가잇지만은 前述한中이되도 科學의힘을가지고 全然이것을 除去할수가엇다고 하더래도 우리社會의 一員인 우리는 全힘을 어 三大惡을除去함에힘써 理想의社會 卽 살기조혼社會를 만들기爲하야 一致協力 私利를 捕棄하고 公衆을爲하야 邁進해야 하겟다 우리들의畢竟은 理想의社會로 進出하리라。

【隨想】 同情아닌同情

세부란스醫專 李達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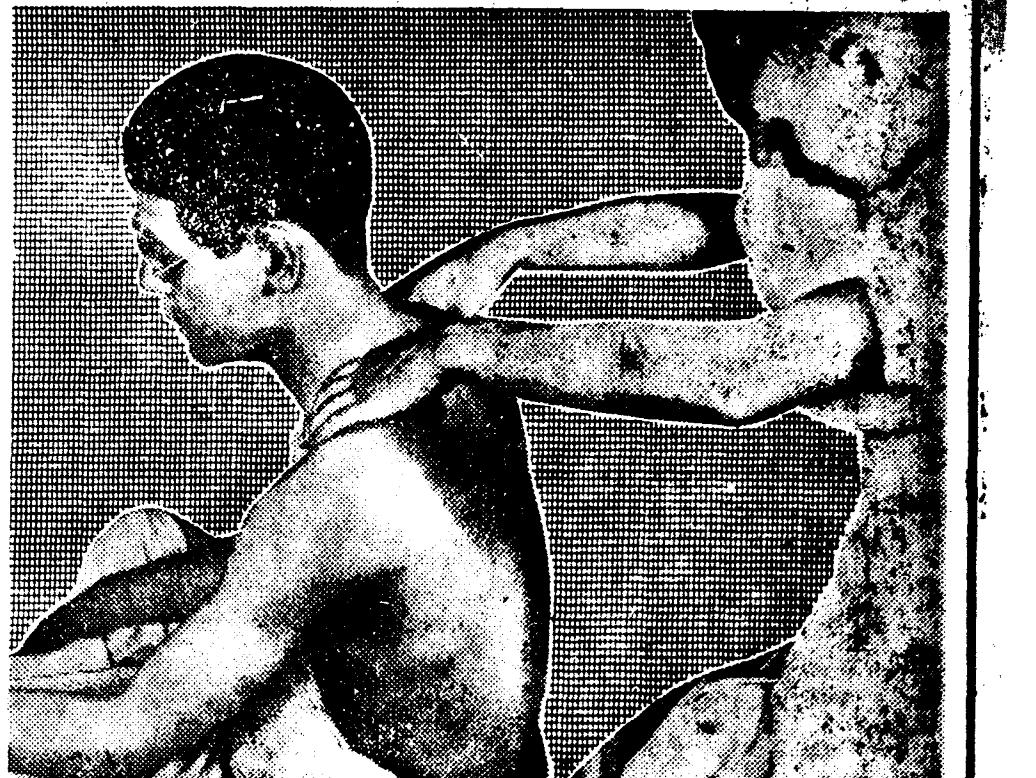
해는西山에 기울고잇습니다。하로의勞働에 疲困된해님!義務와責任을다한듯 이마에땀울씨스면서 기쁨으로 마즈막우슴을던지고잇습니다。無氣力하나마 天堂과地獄으로된 저언덕 東山을 비최이고잇습니다 그리고 曹洞宗寺鍾閣에서 은은히흘려나리는 저울림!그『리즘』에 調子마처 숨어버리는 海蘭江건너편놈!龍井에는 점점어둠이 닥처옵니다 平和와幸福을 意味하는反面 恐怖와不幸을 暗示하는 이夕陽은 이땅에 닥처왓습니다 그리하야 집집大門에서 에기안고 자장歌를 부르며 달내든여편婦女와어린이들의 자최도 漸漸줄어갓습니다 그들은 終日도록보고시픈 아버지와 사랑하는 男便或은오빠들을 모서다가平和롭고 情다운『홈』의 家庭氣에서 맛난저녁밥으로 보이지안는 부드러운 愛情을 주고 밧고 합니다。只今까지 원 몸에 잠겨 들어던 孤寂感은 香氣로운 저녁 料理젓에 다 가버렷습니다。그네들은 幸福의 秘境에서 無限한喜樂을 것드리고 잇습니다 刻刻으로 저山에 살아저버리는 저녁볕! 그들은 즐기고 잇답니다。

그러나 無限한 悲劇을 演出하는 무리잇으니 이어이하랴! 陶陶히 물결치며 흐러나리는濁流의 외침, 그리고 그아우성、어찌虛無와 絶望의 무덤에서 어둔아버지를 찻는 그 音聲, 어들부르는 울음, 안해와 男便을 찻는 그 散亂된 눈瞳子여! 그러나 無數한 生命과 財物을 흔터붙고 거칠업시 제멋대로 뛰여갑니다。갈바를아지못하고 헤매는 저무리!그들은 當場에집이업고 밥이업습니다。나무와倉새或은 비집을 찻고 잇슬뿐입니다。行方不明이된 아들딸或은濁流의犧牲이되고야 만안해의面影을 生覺할 餘裕조차업습니다。唯一한 生命인 집과 田畓밋穀物이流失된것은 平凡한일로 [illegible]

업니다。다만 死線에 直面한自身의 處置가 問題입니다。只今 平和롭은 家庭에서 幸福을 누리고잇는 金가李가를 念頭에둘 瞬間이 업는것은 事實입니다。아! 地球의 구석구석마다 公平하게 비츨 보내시는 해님은 벌써 西山에숨어버렷습니다。저무리들은 해비츨 볼수업서요。다만 暗黑으로 暗黑에 流浪하는 집씨의무리 그네들의갈곳은 어디메요!! 그네들은 盲目的으로 비틀거리며 발을 옴겨 놋습니다。騷音과雜音에 귀를 기우리며 우리怒건너편 大路에서 彷徨하는 許多한 무리들을 내여다보며 하염업는 雜念에 사로잡힌 이내머리는 어린옷졉하야 젓습니다。無情하고 冷然한 이내맘엔 아직도 참된同情心이 끄러오르지안습니다。나는 暖爐에너머저 天井을 바라면서 내自身의 더욱 悲慘함을 늣겻습니다。웨?

그들을 덥흔 이내방에 데려다 잘수엇도록 못하는 나自身—그리고 남을 밥뗑어리를그들의입에 너허주지 못하는이내身이 더욱 悲慘하엿습니다。볼상하다는 그무리들의 同情을바더야할 가엽슨 내自身이 아닙니까?

只今까지 이마에 주름살을짓고『불상하다 참안되엿다』고중얼거린것은 다만 假同情에 不適한 作亂소리가아니겟습니까?果然참된 眞心에서湧出한 간절하고 가륵한 同情心이엿다면 人間性을띤 同情心이엿다면 내房과내밥을 나노하주엇슬것이 아닙니까? 저하늘노피 휘날리는 夕陽의새들도 그우름소래로 그불상한 무리를同情함이 아닙니까? 참된同情心이여! 어떠에가는찻지어다。벌써그들은 주린창자를웃들고 면후先無한울새에갓습니다。그러나 이땅엔 변房과 남어 썩어버리는밥뎅어리가 집집마다 묵어납니다。나는 다시 閑한房을 돌아보고 감이 몸물일어나는 발풍울바라며 網膜上에서 떠러질줄몰으는 그悲慘한 光景어 다시 걸때를聯想하여보앗습니다。



弱한身體를 强하게하면

皮膚에彈力이나서 살결이부드러워지고 身體에精根이넘친다

試驗하면곳안다

身體가弱하고튼튼한것은곳皮膚에 나타나는 것인데 익숙한 암마쟁이면 조곰도 눈어 뵈지안허도 주무르며 相對者의 皮膚의 感觸으로 어사람은 身體가弱하다든 튼튼하다든 分明히 안다고합니다

그래서身體의芯 어弱한사람은 皮膚가 潤澤치못하며 살을만저보면 彈力이 업고 脂肪分에 缺乏한고로 겯고로우나 身體가튼튼하고 精根이 强한이는 皮膚의 光澤이 조코살결이부드러워서 어덴지모르게彈力이엇스며 脂肪分에 넘처잇는고로 퍽살퍼듬어 좃습니다

그러나身體가弱하므로感氣에 걸리던가 여름을 타던지 胃腸에 탈이나던지 身體가 나른하여 困難하다는 분들이 滋養强壯劑의 養命酒를 愛用하면 血行어 조화지며 食事가 업에달고 몸어 퍽조화저서 皮膚의빗갈이어데지모르게생기잇고 부드러워서 탄탄한 彈力잇는 살결이 되여 놀라웁게 살이오르고 感氣를든다 몸어 나른하다 疲勞하다는등 어런말은 어즌듯한 튼튼한 身體가 된다고 愛飮하고 게신분어 만흐니 누구시던지 한번 試驗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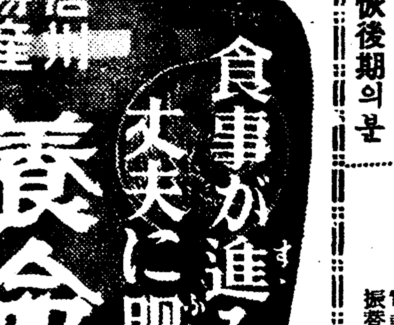
滋養强壯劑로서
◆胃腸衰弱한분
◆虛弱體質인분
◆根氣薄弱한분
◆神經衰弱한분
◆貧血厥冷한분
◆呼吸器羸弱한분
◆病後恢復期의분

全國의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습니다 品切일時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先金送料不要代金引換으로發送要합니다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信州上伊那郡南向村 釀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澁谷二八四七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川柳募集
養命酒의效能을表現한川柳를葉書로投句歡迎。採用하는句는薄謝를贈呈합니다。



敎育의根本問題 李勳求

長篇連載 世紀의花紋 金南天 (鄭玄雄畫)

中篇小說 大湯地아주머니 金東仁 (金熊超畫)

젊은어머니讀本 李建男

男性의魅力 女性의魅力 諸氏 무동내公開狀
宋今璇論…李淑鍾
李淑鍾論…宋今璇
白南舜論…鄭燦英
鄭燦英論…白南舜

清秋詩壇
◆메새소리…白石詩 崔根培畫
◆비…白菊喜詩 金奎澤畫
◆愛戀頌…李燦詩 鄭玄雄畫

十月食卓…林命順
★主婦備忘錄 ★조각보 ★女性界消息

十月號 定價二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六七六

李先根氏家庭風景…記者

物資統制와生活対策 李健赫

十月號 定價二十錢
女性
知名女性印象記
[illegible]理由書
故鄕에두고온이야기
鍾路夜話
報畫 清秋風景 美洲에서活躍하는崔承喜 流行하는結髮新態 巴里風景
秋風蕭
업는故鄕생각 金晋燮
나와아부지 李善熙
서글픈追憶 李軒求
山居(詩) 韓龍雲
빨래질(民謠) 金鍾漢
崔永秀　李鍾世